

악명 떨친 데바닷다 악인일까 선인일까

“데바닷다는 여러 번에 걸쳐 부처를 해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매우 괴로워했다” <파승사> “데바닷다는 항상 석존의 칭찬을 받았다” <대방등무상경>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불교 역사에서 데바닷다(제바닷다)는 절대적이라 할 만큼 ‘악인’의 전형으로 그려져 왔다. 거의 모든 역사가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는 점에서 데바닷다 역시 ‘역사적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일까?

“데바닷다, 그는 정말 악인이었는가”는 제목에서 보여주듯 그동안의 일반적인 평가를 넘어, 대·소승 경전이 전하는 데바닷다에 대한 기록에 담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도가 담겨 있다.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자 제자인 데바닷다는 승단분열을 책동하고 아자타삿투 왕자를 부추겨 죄를 범하게 하고 부처님을 해치려 하는 등 극악한 행동으로 불교 교단사에서 가장 지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사리불에 의해 ‘훌륭한 집안에서 출가했고 총명하고 큰 신동력을 가졌으며 용모가 단정하다’고 찬탄받는 등 양면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도를 여행한 법현 스님의 <불국지>나 당나라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 등을 보면 부처님 사후 1000여 년이 지난 때까지 데바닷다를 모시는 교단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악인의 전형이 된 데바닷다가 어떻게 교단을 이룰 수 있었을까? 대만 불광대 종교학과 란지푸(藍吉富) 교수는 책에서 데바닷다의 선행(善行)을 기록한 <미란타왕문경>과 그의 악행이 부처님의 공덕을 드러내주기 위한 방편이라 주장하는 <대방등무상경>의 기록을 근거로 데바닷다의 참 모습을 한 발 더 다가가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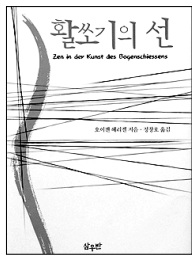
하지만 책은 단순히 불교경전들의 ‘훈란되고 통일되지 않은’ 평가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지은이는 데바닷다의 예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전의 기록이 모순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문헌의 조각을 신앙의 근거로 삼는 신앙방식은 올바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곧 불자들에게 깊은 통찰과 올바른 판단,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경전마다 서로 다른 각도의 견해와 전설이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현대인들의 불교신앙 혹은 연구에 더 넓은 사고공간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데바닷다, 그는 정말 악인이었는가
란지푸 지음 | 원필성 옮김
윤주사 | 8천원

활을 쏘는 순간 ‘나’는 없다



활쏘기의 선
오이겐 헤리겔 지음 | 정창호 옮김 | 삼우반 | 9천원

서양인이日서 체험한 궁도와 선 유럽에 선문화 알린 필독서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독일의 철학자 오이겐 헤리겔(Eugen Herrigel)은 일본 도쿄(東北) 대학 교환교수 자격으로 처음으로 일본에 발을 들인다. 6년간 일본에 체류하며 일본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궁도(弓道)를 배웠던 그는 독일로 돌아간 이후 당시의 경험을 책으로 펴냈다. 1948년 독일에서 출간된 <활쏘기의 선>은 이후 독일과 유럽에 일본의 선(禪) 문화를 알리는 필독서가 됐다.

이 책이 최근 <연금술사>로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브라질 출신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의 “젊은 시절 영감과 열정을 일깨워준 책”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다시 한 번 세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책의 줄거리는 단순하다. 학창시절부터 신비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던 헤리겔은 ‘선불교’를 일종의 ‘신비주의의 동양적 발현’으로 여기고, 선 사상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쏘기를 배우게 된다. 처음에는 활시위를 당기지 못하던 헤리겔은 일본 궁도의 명인 아와 겐조(阿波研造, 1880~1939)의 지도 하에 ‘대나무 위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눈처럼’ 활살을 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궁사는 근본적

으로 자기 자신을 겨냥한다’는 지극히 비서구적인 가르침을 몸으로 체득하게 된다.

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헤리겔이 스승과의 대화를 통해 ‘활쏘기의 비밀’을 전해받은 대목이다. 가령 활을 제대로 당기지 못해 오랫동안 고생하던 그는 스승이 가르쳐 준 호흡법을 익히자 활쏘기에 성공하게 된다. “왜 처음부터 호흡법을 말해주지 않았냐”는 헤리겔의 질문에 스승은 답한다.

“만약 수업을 호흡법에서 시작했다면, 호흡에 결정적인 것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거듭된 시도를 통해 죄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던져 주는 구명 튜브를 움켜쥘 준비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스승은 “활쏘기에 이르는 길은 마음이 순수하고, 활쏘기 외에는 잡념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열리게 마련”이며 “활을 쏠 때는 쏘는 사람 자신도 모르게 쏘아야만 흔들림이 없다”고 말한다. 무심(無心)의 상태에서 ‘합



독일의 철학자 오이겐 헤리겔(Eugen Herrigel, 사진 왼쪽)과 일본 궁도의 명인 아와 겐조(阿波研造, 1880~1939)가 활을 쏘는 모습. 사진제공=삼우반

이 없는 합’을 해야 한다는 ‘활쏘기의 기예’는 바로 선불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서양인의 시각에서 본 일본 궁도와 선에 대한 보고서이자 넓은 의미에서 ‘서양인의 동양 문화 체험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헤리겔은 일본의 선불교를 유럽에 알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서양인들이 동양, 그 중에서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보여준다. 신비적이고 반이성적이라 여겨던 ‘선’의 요체를 시종 진지한 자세로 깨우쳐나가는 지은이의 노력도 흥미롭다. 이미 출간된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책이 독자들에게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nia.com

새로 나온 요가책

요가, 알고 즐기면 효과 두배

요가의 세계 게오르그 호이에르슈타인 지음
이태영 옮김 | 여래 | 1만원

쿤달리니 요가 이태영 지음 | 여래 | 1만원

요가가 ‘유행’하고 있다. 나이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요가수련장에 뛰어들어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한다. 요가에는 삶의 활력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이 있고, 참살이(well-being)의 핵이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스타일이 있다고. 그렇다면 그들에게 묻는다. 그 안에서 깨달음을 논해 본 적이 있는가.

<요가의 세계>는 그 같은 의문에서 시작한 책이다. 40여 년 이상 요가 사상을 연구한 게오르그 호이에르슈타인은 처음에는 유행이나 건강을 이유로 요가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을지라

도, 요가의 사상과 본질을 접하게 되면 상상 이상으로 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건강 체조로 대표되는 ‘하타요가’에만 익숙한 이들에게 소리의 힘을 응용한 만트라 요가, 성에너지의 전환인 탄트라 요가, 요가에서의 가장 높은 각성을 의미하는 쿤달리니 요가 등을 설명하며 영적 여행의 총괄적인 ‘삼매’와 그 종류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까다로운 철학서를 상상할 필요는 없다. ‘힌두신이 거주하는 사원’으로서의 ‘육



요가의 세계
쿤달리니요가

체’를 드러내기 위한 신체 정화법과 체위법 등이 두루 소개된다. 불교의 계율에 비할 수 있는 5가지 금지계·권고계를 비롯해 채식주의 중심의 요가 식생활 등을 힌두교 전통 경전을 풀이하는 가운데 함께 전하고 있다.

<쿤달리니 요가>는 한국요가연수원 원장이자 요가철학자인 이태영 박사가 요가의 맛을 느끼기 시작한 요가수행자들을 위해 쓴 책이다. 쿤달리니는 척추 기저부에 감겨진 힘으로, 인간 생명의 근원이자 잠재된 무한한 에너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에너지의 존재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범속한 삶으로부터 초월하고자 하는 야심 있는 자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 같은 에너지 각성 방법이 바로 쿤달리니 요가다.

지은이는 쿤달리니 각성 체험을 바탕으로 실질행법 중심의 쿤달리니 요가를 설명한다. ‘쿤달리니 요가’라는 말 자체가 국내에서는 생소한 편이지만, 지은이는 쿤달리니 요가의 사상적 배경인 ‘탄트라리즘’의 신비를 벗겨내며 호흡법과 명상법 등 구체적인 행법들을 간결하게 정리해냈다.

강신재 기자 thaiswhy@buddhania.com

늦깎이 출가자가 들려주는 삶의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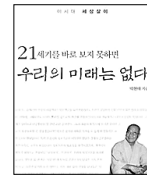
지난해 고희의 나이에 출가해 화제를 모았던 지연 스님(박현태 前 KBS 사장이 20~30대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출가 전 ‘망언광장(www.parkviewpoint.com)’이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들을 묶은 것이다.

<21세기를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에서 스님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평화롭고 번영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들려준다. 출가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겸 11대 국회의원, 동명정보대 총장, KBS 사장 등을 역임하며 겪은 다양한 경험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더라도 “19, 20세기의 구시대적 발상을 뛰어넘어 새 시대에 걸맞은 새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스님의 뜻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야생화와 신문, 자격증, 결혼식 등 다양한 일상 속의 소재를 통해 잔잔한 감동과 ‘생각거리’도 던져준다. 과도한 의미부여나 과장 없는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가 끝맛을 더한다.

책은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다’, ‘세상에 대해 자유롭게 솔직하게 말하다’, ‘21세기를 준비한 세계사’, ‘이웃나라 이야기’ 등 모두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해 10월 순천 선암사에서 출가해 ‘지연(誌淵)’이란 법명을 받은 스님은 현재 경기도 마석 백련사에 주석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21세기를 바로 보지 못하면...
지연 스님 지음 | 샘터사 | 9천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역시아름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 스님	아름다운연
2	오해부처	한 경 해	반디미디어
3	포교사고시 예삼문제집	조재홍(조재홍)	조계종출판사
4	출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5	선사들이 띄우는 깨달음의 편지	정념 스님	장승
6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림
7	서장	전재강	운주사
8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평화 스님	이른아침
9	선방 가는 길	정찬주	열림원
10	왜 사는가	무량 스님	열림원

도서 안내: (02) 737-0695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문연행

건강 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계현 선사님이 역적한 <여로보인 전문연행>

전30권 중 제6권 출간!

최소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책도 빼김없이 펴내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제8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음악제

- 생명 평화 그리고 사랑 -

..... 프로그램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가 함께 꾸미는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음악제가 오는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그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생명 평화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종교간의 진정한 이해와 화합을 도모코자 마련된 이번 공연에는 각 종교계를 대표하여 삼선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의 찬불가 수화공연과 소프라노 “김영미”, 국악인 “오정혜”, 아카펠라그룹 더솔리스트의 축하공연과 함께 300여명의 소년소녀연합창단이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하는 가을밤의 축제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04년 10월 26일 (화) 오후 7:30~9:00
 -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 주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 주관: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 후원: 문화관광부
 - 협찬: 대한불교진각종, YAHOO! 코리아
- * 입장권은 불교방송에서 선착순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 가톨릭대 성성오케스트라 / 지휘: 윤용운
- 삼선승가대학 수화동아리(불교)
 - 사랑애우 부처님
 - 부처님께 귀의 합니다
 - 사랑으로
- 임마누엘 합창단(천주교)
 - 안남
 - 주는 날 구원하시네
- 오정애(원불교)
 - 배 띄어라
 - 안가로움 이어라
- The Solist
 - Java Jive / Autumn Leaves
 - 터키행진곡

- 특별출연
- 김영미
 - 날 잊지 마세요 / 살아계신 주
 - 주여 평화를 주소서
 - 하이스님
 - 오픈 연주
 - 연합합창
 -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 CBS소년소녀합창단
 - Heal the world / 아이들
 - 달밤 / 활짝 웃어라
 - PBC소년소녀합창단
 - 원음소년소녀합창단

BBS 불교방송

http://www.bbsfm.co.k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 문의전화: (02)705-5301